



박태원 교수의

불교로 보는 인생

34

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감기에 고생하더니 일주일째 먹던 감기약을 먹은 직후 아찔하며 이상 증세를 느꼈다. 그 날 밤 누이는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뇌경색이었다. 어이없는 소식에 급히 달려간 병실에는, 전날 아침까지도 통화하며 '아무래도 약을 중독인 것 같아' 하던 누이가 의식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수술을 해도 지금보다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수술 여부를 가족들이 결정하십시오." 고, 대학 1년 두 조카들의 마음은 예상보다 어둡어 있었다. "저희 육신 때문에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지더라도 꼭게 보내 드리겠어요. 평소 드라마에서 이런 일이 나올 때 어머니와 얘기 나는 적도 있어요. 어머니 의견은 저희가 알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구나." 고통을 애써 안으로 삼키는 조카들. 가족들의 얼굴을 차마 직시할 수 없었다.

한 번도 언성 높여 다투어 본 적

지 절망적으로 말하던 의사들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 확인해 주었다. 그렇게 일주일만에 누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일주일만에 겨우 터널을 빠져 나왔어" 라고 전화하는 매형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 눈에는 창 밖의 신록이 안겨왔다.

죽음은 삶의 숙명. 삶은 언제나 죽음을 기다린다. 중생에게 죽음은 전부와의 헤어짐이요 몽땅 상실됨이다. 경험되면 모든 것들을 박탈하는 저 죽음의 심연은 항상 발 밑에 도사리고 있다. 인간은 죽음을 음미하는 독특한 생명체다. 살면서 죽음을 음미할 수 있기에, 인간은 죽음을 통해 존재의 수준을 높여가기도 한다. '모든 것의 잃어버림' 그 고통을 예상하기에, 인간은 죽음과 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삶의 무게를 더해 간다.

중생들에게 삶과 죽음은 서로 충돌한다. 삶은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은 삶을 밀쳐낸다. 둘은 그렇게 상호 배제적이고 모순적이다. 그 충

삶과 죽음의 화해

이 없는 누이다. 어머니를 담았는지 거친 말 한 마디 입에 담은 적이 없고, 남을 미워할 줄 모르는 심성, 놀라운 예술적 감수성과 직관력, 천재적 지능이 돋보이는 누이다. 결혼 후에는 학문의 길을 걷는 매형의 내조와 총명한 조카들의 교육을 위해 실로 헌신적으로 노력하던 누이. 이제 막 인생의 절정에 오르는 때, 이 고운 누이에게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무겁고 슬프고 좌잡한 마음에 휘말리며 병실로 들어가 누이의 손을 잡았다. 정신 차려 마음을 챙기면서 눈을 감았다. 누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고서 누이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간절하게 보냈다.

누이는 인복이 있는가보다. 평소 인연 있던 분들이 모두 찾아와 간절히 누이의 회복을 빌어 주었다. 동네 주민들도 정성을 모아 다녀갔다. 누이 곁을 떠나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지방에서 올라와 밤을 새우며 병실을 지키는 조카 큰아버지 가족들, 밥을 앞세우지나 않을까 열심히 염불하시는 부모님. 이 모든 마음과 정성에 고감하였는가. 누이는 극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전날까

죽음앞에 당당하려면

지혜 키우는 방법

들의 평온은 실로 받아내기 힘든 고통이다. 그러던 어찌해야 하는가. 장수와 천수의 요행이나 바라며 속절없이 앓아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삶과 죽음의 화해는 불가능한 것인가. 삶과 죽음이 따뜻하게 만나는 통로는 없는가. 해법은 마련되어 있다. 삶과 죽음의 벽을 허물어 서로를 소통시키려면 무아(無我)·무분리(無分別)·무소유·무집착의 지혜에 열리고 그 힘을 키워 가는 수밖에 없다. 생의 모든 내용물들을 분리와 소유와 집착으로 경험하지 않을 때 죽음은 비로소 단절과 상실 이 되기를 그칠 터. 생각과 말은 쉽고 체득은 어려움을 절감하지만, 죽음을 담담히 안을 수 있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

초파일 등불에 기원한다. 사랑하는 누이, 생명 성숙의 기회를 금생에서 좀 더 가져 봅시다. 병고에 노출된 모든 이들이여, 평안하소서.

울산대 철학과 교수

법화정사 매주 법화경 사경 도피안사 법회때마다 봉헌

참불자의 길 사경하는 곳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신심을 함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불교가 다방면의 종교란 점이 이를 반증한다. 한 권의 경전을 옮겨 적는 일, 즉 사경(寫經)을 수행의 한 방법이 전방자로 비유되는 것이 이때문일 것이다. 한 자 한 자 불심을 넣어 쓰는 사경이 이제는 불자들의 주요한 수행방편으로 인식되면서 가르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경대회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한편 사경의 모든 신도들이 사경을 하는 등 사경은 이제 특정인들만의 신행과 수행법이 아니다. 연령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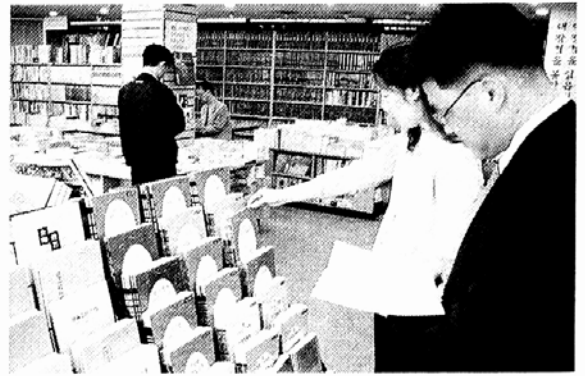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사(주지 도립)와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 불사리탑사는 10년 째 <법사경> 사경을 실시. 매년 광복절 탑에 사경한 책을

봉안하는 법회를 연다. 올해 사경한 것만 약 10만 여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불사리탑사의 사경은 서울 포교당인 법화정사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다.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법화정사의 사경법회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동안 열린다. 이 법회에서는 도립 스님의 <법화경>강의가 진행되며, '사경은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법화정사는 최근 <법화경> 사경을 10번 이상 한 불자 250여명을 주축으로 '사경 전법회'를 결성해 사경수행 대중화에

직장직능 단체도 사경정진 열심

도 나섰다. 불사리탑사의 사경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캐나다 등 외국인들도 동참한다. 이를 위해 영어본 <법화경>을 출간했으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강의를 한다. (02-326-1331) 도피안사는 안성에 사찰을 개창하면서부터 신도들을 대상으로 <반야심경> 사경 결사 수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도들은 가정에서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염송하고 저녁에 사경을 한다. 도피안사는 신도들의 사경수행 활성화를 위해 <반야심경> 사경책을 직접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이 책에는 사경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사경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준다. 도피안사 측은 '법회날마다 신도들이 가정에서 사경한 책을 불전에 올리는 것이 10여권이 훨씬 넘는다'며 '<반야심경> 사경을 통해서 반야에 대한 깊은



한 불자가 사경을 위해 불교전문서점 서이서인 '사경코너'에서 사경책을 고르고 있다.

이해와 믿을 성취할 수 있고 보현행을 수행할 수 있다'고 사경 수행을 권했다. (031-676-8700)

이처럼 정기적으로 사경을 실시하고 있는 사찰이 있는가 하면 점차 많은 절에서 성도절, 열반절, 부처님오신날 등 특정일에 주로 사경을 권하고 있다. 사천왕사가 매년 생명사랑의 실천을 위한 '타태아가령천도사경법회'를 실시하는 것처럼 기도기간을 정해 놓고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국립 서울정신병원, 경산 조계창 금강동 등 직장 직능 단체에서도 사경을 배움을 수 없는 수행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사경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새로운 신행 풍속도로도 확산되고 있다. 여름·겨울 수련회 등에서 사경을 통해서 반야에 대한 깊은

하고 있는 한편 개인적으로 사경하는 청소년들도 많다는 것이 청소년지도자들의 얘기다. 특히 (사파리) 타청소년회회는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반야심경> <보왕삼매론> <출요경>을 사경하는 공모전을 연다. 올해도 4월 28일 마감했다.

불사리탑사 주지 도립 스님은 '<법화경> 권말품에는 <법화경>을 서사하면 도리천에 태어날 수 있다'며 사경의 공덕을 높이 보고 있다'며 '사경은 곧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익혀 실천하는 신앙행위로 수행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불법을 널리 알리고 경전을 후세에 전하는 자리이다(自利利他)의 공덕이 될 수 있다'고 사경 수행할 것을 권했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a.com)



흔히 대혜종교 스님을 간화선의 창시자라고 한다. 그것은 대혜 스님이 <서장>에서 화두를 공부의 요긴한 방편으로 제창하였기 때문이다. <서장>에서 대혜스님은 여러 가지 화두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히 '조주 무자(趙州無字)' 화두를 가장 즐겨 제시하고 있다.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묻되 '거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스님이 말하기를 '무(無) 하였다.' 이 '조주 무자' 화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편지가 '부추밀에 대한 답서'이다. 여기서 대혜 스님은 화두 참구의 목적과 방법, 화두의 기능, 화두의 본질 등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화두 참구의 목적에 관해서 대혜스님은, "만약 곧바로 계합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을 단박 부수어 버려야 합니다. 그 때에야 비로소 생사에 요달

'서장' 통한 선 공부 ⑫

부추밀에 대한 답서(1)

일상의 삶 모두가 화두이며 자성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할 수가 있으며 깨달아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방법으로서 화두의 참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두 참구의 목적은 문득 한 생각을 부수어버리고 경성하는 것이다. 화두는 곧 말(言語)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왜 경성의 방편으로 '말을 보아라(看話)'고 요구하는가? 대혜스님은 '조주 무자' 화두를 제시하고서 말하기를, "이 한 마디 말은 수많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무찌르고 막아주는 무기입니다" 하고, 이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와 수행자의 병통을 언급하고 있다. 즉 화두를 방편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화두가 잘못된 견해와 수행 도중에 처하는 여러 병통을 부수어서 올바른 경성의 길에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으로 대혜 스님은, "다만 망상으로 전도된 마

음과 사랑분별하는 마음과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과 지견(知見)으로 이해하는 마음과 고요함을 즐기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시에 붙잡아 놓려 두고, 그 붙잡아 놓려 둔 곳에서 다만 화두를 보십시오"라 하고, "이것은 있니 없니 라고 이해해서도 안되고, 생각으로 이치를 사랑하고 헤어려서도 안되고, 눈섭을 치켜올리고 눈을 깜박이는 곳에 의지해서도 안되고, 문자로써 증거를 삼아서도 안되고, 일 없는 속으로 도망쳐서도 안됩니다"라고 잘못된 공부를 경계하고 있다. 요컨대, 화두를 참구함에는 어떠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말이나 견해의 경계에도 머물러서는 안된다. 어디에든 머무르는 순간 그것과 그것 아닌 것으로 나누어져 이법(二

法)에 떨어져 버린다. 이러한 까닭에 무엇 보다 먼저 주의할 것으로, '절대로 마음을 두고서 부수길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만약 마음을 부수는 곳에 둔다면 영원히 부술 때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화두를 부수는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곧 화두를 부수는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화두를 대상으로 삼으면 늘 화두와 나는 별개로써 자타(自他)의 이원적(二元) 분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만 하루 종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속에서 늘 잡아쥐고 늘 알고 계셔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를 일상의 삶에서 떼어놓지 마십시오. 만약 이와 같이 공부해간다면 언젠가는 문득 스스로 보게 될 것

가사불사 및 예수재 안내

■ 일 시 입제일 : 2001년 4월 29일(음력 4월 6일) 10시 회향일 : 2001년 6월 17일(음력 윤 4월 26일) 10시

가사(袈裟)는 부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법의(法衣)라고 합니다. 회유한 가사불사에 동참하면 무량한 지혜와 공덕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사년 윤달의 해를 맞이하여 세세생생의 업장을 참회하여 모든 죄업을 소멸하고 생전에는 복덕과 수명을 증장하고 사후에는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 하는 예수생칠재를 아울러 봉행코저 하오니 모든 불자님께서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는 선근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초재 5월 6일(음4월 13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영가천도재를 지냅니다.

- 가사불사 동참금
☐ 대가사 : 100,000원
☐ 반가사 : 70,000원
☐ 소조가사 : 50,000원
● 예수재 동참금
☐ 예수재 실판 : 200,000원
☐ 동참 : 50,000원
☐ 영가1취당 : 7,000원

◆ 통도시
☎ 055)382-7182, 381-1442
FAX 055)382-7196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佛之宗家 靈鷲叢林 通度寺 主持 薪虛 合掌
國之大刹